

(매일일보)=

분양 특집

'동장군'도 놀란 뜨거운 12월 분양 열기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자 겨울의 시작이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12월에는 '동장군'도 놀란 뜨거운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회복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교육환경 우수

대구광역시 북구 신천동에 조성되는 '아카데미 빌리지'는 교육환경이 우수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아카데미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적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과 편리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연세아파트' 분양... 교육·생활 인프라 풍부... '퍼주 렌드마크' 기대

연세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연세아파트'는 교육·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퍼주 렌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단지는 연세대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적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과 편리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3호선 '월선 테크노 캠퍼스' 분양... 교통편리성 높인 '유일한 단지'

3호선 '월선 테크노 캠퍼스'는 교통편리성이 높은 '유일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3호선 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과 편리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분양' '영우테크노도시' 시대를 열다... 소비자 직접 보고 고르는 '후분양' 단지

'영우테크노도시'는 시대를 열다... 소비자 직접 보고 고르는 '후분양'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단지는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과 편리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시아글로벌브는 GS가 건설하는 '일산 자이 2차'를 소개하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실으면서 『접근성이 좋다』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커뮤니티도 우수하다』 『고급스런 조경설계는 일산자이 2차의 가치를 한껏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소장의 멘트) 등 단지의 장점 또는 핑크빛 기대만을 상세히 전하는 홍보성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고 그 아래에 분양문의 전화번호도 실었다.

매일일보는 9개 단지의 분양 정보를 2개면에 걸쳐 실었다. 사실상 광고나 다름없는 내용임에도 「분양특집」란 문패를 달고 부동산 한 건 한 건 마다 기자 이름을 달았다.

두 신문의 지면은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